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를 배워보는
진로 인문학 시간.

진행에 저는 강은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
모셨거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만나 뵙게 된

이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은하-앞으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이대성-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런 고민 많이 했었죠.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까?
또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은

어떤 게 있을지.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딩달아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녀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 진로지도 또는 교육

이와 연관된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네, 맞습니다.
저도 아나운서, 방송인이라는

그런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하고,

또 어떤 방송사에서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대성-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서

평생을 결정해야 되는 진로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미비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무엇인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떠밀리듯이 진로를
선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고통을 받고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대로
갈팡질팡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치여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셔도

진로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두고

강의를 해야 되는
우리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러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진로교육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하-말씀대로라면 사실
모두가 좀 힘든 상황이

진로교육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말씀이신데요.

주변을 좀 둘러봐도

대학에 들어가서 일을 정하고
나서도 30대가 돼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대성-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네, 오늘은 진로지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열심히 들을 준비됐거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이대성-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은하-자녀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아, 어렵네요.

이대성-진행자께서
아나운서가 되실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셨어요?

강은하-저는 우선 닮고 싶은 롤모델
선배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거치기까지 방송부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네요.

이대성-아, 그렇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1순위는 학부모로 나왔습니다.

초, 중, 고 모두 1위가
부모님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과연은 아닌 것 같아요.

강은하-네.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부모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대성-2위는 학교 선생님께서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인물.
그다음으로는 친구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학부모의 진로지도 지식이
바람직한 자녀 진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자녀 진로지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진로교육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언뜻 생각하기에는
요새 워낙 많은 매체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서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학부모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네요.

이대성-그렇죠.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대학이 아닌 진로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성과 직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에서부터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이 진로.

이 진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대성-진로는 나아가야 될 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출생 이후에
성장 과정.

또는 학업, 직업생활
또 가정생활, 노후생활

뭐 이런 생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은하-그러면 이제 진로를 내 앞에
미래를 두고 밑그림을 좀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진로를
혼자 고민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네, 그렇죠.

어린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진로 세계를 이해하고 또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케어해 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봐줘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신뢰성
또는 진로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학부모로서의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은하-그러면 부모가 하는
자녀의 진로교육을 잘 수행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대성-네,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칼 비테라든지 우리 맹자,
아니면 도행지, 노신, 신사임당

이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그래도 어렵지 않은
언뜻 떠올릴 수 있는 분들도

거론해 주셔서 좋습니다.

'칼 비테'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대성-네. '칼 비테' 선생님은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 스스로가 글쓰기를
배우겠다고 표현하기 전에는

선불리 글자를 가르치지 말아 달라.
이런 강조를 했고요.

둘째는 아이가 의견을
터놓고 말을 하도록

무한으로 허락을 하고
그 말의 뜻이 옳든, 그릇되든

그런 것들을 전혀 간섭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고.

세 번째는 아이가
모국어 배워기 전에는

외국어를 가르치지 말 것.

이런 아주 원칙적인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은하-네, 사실 '칼 비테'는

6개 국어를 하신 분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강은하-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언을 하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대성-네, 그렇죠.

강은하-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또 '맹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성-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맹모삼천'이죠.

'천'자는 알다시피
옳길 '천'자.

자녀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할 정도로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대단히 진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강은하-네, 그리고 조금
저는 낯선데요.

'도행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성-네, 우리 '도행지'는
무덤 앞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천만 번을 가르치더라도
진실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되고,

천만 번을 배우더라도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배워라.'

뭔가 진로교육과 교육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한

그런 글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은하-네,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내용 같습니다.

이대성-네, 맞습니다.

강은하-네, 그다음에 '노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이대성-중국사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노신'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분은 49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특히 '동심 개발'을 통해서
자녀의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을 절대적으로 존중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강은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신사임당'

익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이대성-네, 우리 '신사임당'
선생님은

자녀에게 특별히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당당함을 보여준
요즘으로 얘기하면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대표적인 진로교육의

선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은하-옛날부터 자녀교육을
정말 잘 해온

그런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칼 비테, 그리고 맹자,
도행지, 노신, 신사임당

이분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진로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네, 제가 발견한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자녀의 모든 감각 기관

그리고 감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녀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상황을 깨우치고 경험을 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관찰자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강은하-지금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이렇게 관찰자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지만

막상 내 아이 앞에선
잘 안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자녀 진로를
잘 지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대성-그래서 제가 준비한
본 교육 과정이죠.

자녀 진로지도 방법에서는
자녀의 직업선택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진로지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진로의 의미
또한 새롭게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은하-네, 진로를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풀어주실 거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로를 4가지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성-네, 저는 진로의 구성요소를
방금 설명하신 4가지

즉 업종, 직업, 기업, 학업
이렇게 4가지로 봤는데요.

자녀가 이 4가지를 성공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진로지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은하-업종, 직업, 기업, 학업
이렇게 4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4가지가 자녀의 진로지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성-네, 사례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영업 담당자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4가지를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품이라는 업종과
그리고 영업이라는 직업과

세 번째가 식품회사라는
관련 기업과

네 번째가 이와 연관된
학업 전공이 있겠죠.

이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진로 요소의 4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은하-식품회사에 내가 영업직으로
진로를 딱 결정을 하면

업종, 직업, 기업, 학업 이게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너무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성-그런 가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연관된 질문입니다.
식품유통업을 하는 기업에

대표님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로를

무엇을 선택했을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가 '식품유통'이라는 업종.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직업

그리고 어떠한 가치와 사명에 의한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와 연관된
학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앞서서 말씀드린 사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은하-말씀해 주신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업종, 직업, 기업, 학업' 이 4가지를
잘 알면 계획을 세우고

또 과정을 실천하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네, 맞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오늘 진로교육

첫 시간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강은하-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나운서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경력을 잘 쌓아왔다,
진로를 일찍 정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해 주신
역사 속의 인물들도 그렇고

저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성-네, 맞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로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자녀 진로지도 중에서도
직업 선택에서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다양한 상황과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강조를 드린 것처럼

진로의 구성요소인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선생님께서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잖아요.

좀 남다른 사명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대성-네, 저 또한 자녀 2명을
두고 있어요.

아이 엄마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낙서를 했던,
아니면 좋아했던 장난감

그리고 일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즐거웠던 자료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버리지 않고

아이 엄마랑 같이 계속 수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간혹 제가 기업이나 학교에서
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할 때

같이 공유를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과거의 모습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충분히 보고

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부족하나마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강은하-그렇죠.

이대성-학교에 가고
또는 출가를 하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가 지구와의
이별을 하는 순간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교육.

필요한 교육이 바로
진로교육.

자발적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인생을 열어가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은하-오늘 이대성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관찰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다 보면
좋은 부모로 자녀의 진로지도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성-감사합니다.